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 계룡산 시시(詩示) 여행, 시로 보는 계룡산 이야기

-갑사의 역사적 명소를 잇는 여행 경로 안내 책자 제작-

2017. 08. 21

이동찬, 이 성, 이창민, 이호진

지도교사 : 신윤석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계룡산 시시(詩示) 여행, 시로 보는 계룡산 이야기

## \_갑사의 역사적 명소를 잇는 여행 경로 안내 책자 제작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411 이동찬, 1412 이 성  
2411 이창민, 2412 이호진

### 1. 탐사의 필요성

#### 가. 연구 문제 선정

##### 1) 기존 안내 자료의 단점

우리는 산을 오를 때 안내 책자를 받거나 사이트를 통해 등산 경로를 파악한다. 하지만 대개 안내 책자에는 해당하는 지역의 특징, 경로만 적혀 있어 단순히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만 사용되고 있다. 우리 팀은 지금까지의 안내 책자는 여행객들의 흥미를 끌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미를 전달하는 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안내 책자를 제작해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안내 책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학생들이 뽑은 기존 안내 책자의 문제점은 주로 떨어지는 가독성, 흥미도가 떨어지는 내용, 안내 책자마다 내용이 비슷하여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족, 친구끼리 여행을 가도 재미있는 계룡산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계룡산의 역사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 2) 계룡산의 역사적 의의

특히, 계룡산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장소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도 알려진 명산이다. 당나라 시대의 중국인들도 계룡산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적 이점을 인정받아 계룡산 부근이 도읍지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즉, 계룡산은 역사적으로도 인정받은 명산이다. 따라서 재미와 흥미를 기반으로 계룡산 역사여행 경로를 제작하고, 직접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 나. 연구 진행 방향

##### 1) 시를 통한 갑사 감성여행의 기획

계룡산은 닭의 벼슬을 쓴 용을 닮았다하여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계룡산에는 4개의 대표 사찰이 있는데 그 중의 으뜸이 갑사이다. 우리는 3일이라는 시간 내에 효과적인 역사여행 안내 경로 및 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역사적 증거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갑사로 탐사방향을 잡고, 갑사의 각 장소마다 시를 작성하여 감성적인 갑사여행을 진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시를 각 장소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작성하면서 역사공부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갑사만의 특수성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 2) 갑사 당산제 전설의 재구성

우리 팀은 계룡산 역사 투어를 기획하면서 재미있는 설화와 전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예로는 계룡산 청량사지 쌍탑이 있는데, 백제 멸망 이후 한 남매가 그 탑에서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있어 계룡산 남매 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제석사, 암용추와 수용추에 대한 전설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 이런 이야기들을 안내 책자에 담는다면 여행객들도 재미있는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갑사의 전설과 설화를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탐사 도중 갑사 괴목나무 당산제 전설을 알게 되었고, 당산제 전설을 전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써서 여행의 흥미를 끌게 하였다.

## 3) 연구 방법 및 기대 효과

우리 팀은 각 역사적 명소에 대한 역사적 사실, 설화를 조사하고, 직접 탐사하여 사진으로 기록한 뒤, 각 역사적 사실에 맞는 시를 각자 작성하여 지도에 넣어 역사 여행 안내 책자를 제작할 것이다. 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 (1) 시와 함께하는 감성여행: 갑사의 역사적 명소 8곳을 선정하여 시와 사진으로 명소를 이동하는 경로를 만들고, 시를 작성한다.
- (2) 갑사, 전설의 재구성: 갑사의 괴목나무 당산제 전설을 새로 재구성하여 여행객들의 재미 요소를 더한다.
- (3)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갑사 1박2일: 템플 스테이를 통해 친구, 가족과 함께 갑사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갑사 템플 스테이 이야기를 첨부한다.

## 2. 탐사 과정

### 가. 계룡산 갑사의 구조 및 명소 사전 탐사

- 1) 인터넷에서 계룡산의 누리집과 여러 방문객의 글들을 통해 갑사 내 방문할 장소 및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조사한다.
- 2) 첫 날 계룡산 갑사를 산행하며 해당 명소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 3)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정리하여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정리한다.

### 나. 설화에 대한 시 작성 및 이야기 재구성하기




- 1) 각 명소의 역사적 사실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적고 토의한다.
- 2)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이 각자 역사적 사실 한 개를 고르고 시를 작성한다.
- 3) 시 작성 이후 서로 나누고 첨삭하여 시를 완성한다.
- 4) 괴목나무와 관련된 설화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본다.






## 다. 역사 명소 시시(詩示) 여행 안내 책자 제작하기

- 1) 해당 명소와 방문 경로를 중심으로 갑사 내 지도를 제작한다.  
→ 우뇌드로잉의 방식을 활용하여 직접 갑사 지도를 그리고 포토샵으로 편집하여 색감을 입힌다.
- 2) 시와 재구성한 설화를 첨부하여 책자의 틀을 만든다.  
→ Power Point 프로그램을 통해 책자 디자인을 완성하고 편집한다.
- 3) 갑사 템플 스테이 등 1박 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넣는다.
- 4) 명소를 이어 여행 경로를 보이고, 책자를 꾸며 책자를 완성한다.

## 3. 탐구 결과

### 1) 시로 보는 시시(詩示)여행

가. 갑사 입구-대웅전	<p>계룡산 4대 사찰 중 으뜸이라는 갑사의 입구. 백제 구이신왕 당시 고구려에서 온 승려 아도가 창건한 갑사. 정유재란 당시 불탔으나 조선 고종 시대 완공.</p> 	<p>우몽(소가 지어준 절)</p> <p>어느 날 밤 꿈에서 울고 있는 초라한 나 받기는 살갓이 갑옷처럼 단단한 소 한 마리</p> <p>정유년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 눈물에 잠긴 나 바라보는 젖빛 언덕 위를 말없이 오르는 소 한 마리</p> <p>부여로부터 내려온 인연이 맺어준 천년이라는 시간의 선물 소 한 마리가 선물한 천년이라는 시간의 발자취</p>
나. 표충원-영규대사비	<p>계룡산 4대 사찰 중 으뜸이라는 갑사의 입구. 백제 구이신왕 당시 고구려에서 온 승려 아도가 창건한 갑사. 정유재란 당시 불탔으나 조선 고종 시대 완공</p> 	<p>영규</p> <p>부처의 이름으로 한마음 어루모아 외세를 물리치려 머언길을 떠나네</p> <p>그들의 마음에 노래를 불러주네 우리 민족의 충(忠)에 대해</p>
다. 팔상전-요사채	<p>석가여래의 일대기를 8부분으로 나눈 팔상 대화와 신중탱화를 모시고 있다. 다포양식으로 꾸며져 격식을 갖추고 있다.</p> 	<p>8</p> <p>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인간의 인생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의 인생</p> <p>인간들의 인생도 어려운데 석가여래의 인생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의 인생이 담긴 이 곳.</p> <p>팔상전</p> <p>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생 이야기가 이 숫자 안에 담겨있다 8</p>

라. 내원암	<p>· 갑사에 소속된 암자로 석가모니와 관세음보살을 모신 불전과 온돌방 구성. 건물의 전체 형태를 정면에서 보면 '一'자이지만 전체 형태는 '丁'의 형태이다.</p> 	<p>하나(一)의 정(丁)</p> <p>한국의 오랜 문화 정(情)</p> <p>정들이 모여 만든 하나(一)</p> <p>하나가 만나 탄생한 갑사의 자랑 정(丁)</p>
마. 삼성각	<p>· 북두칠성을 말하는 칠성, 산신, 독성의 삼신을 모신 도교, 불교, 토속 신앙의 요소들이 합쳐져 한 곳에 모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p> 	<p>삼성각</p> <p>3개의 큰 별이 모이면 하나의 절로 보이듯이</p> <p>3개의 큰 뜻이 모여 하나의 마음을 말하네</p>
바. 월인석보목판 (보물 제 582호)	<p>· '월인석보'를 새겨 책으로 찍어내던 판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 유일한 판목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불교대장경이라 할 수 있다.</p> 	<p>월인석보</p> <p>갑사 안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고운 자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고운 자태</p> <p>미륵의 세상을 어린 백성에게 전하는 그 고운 자태 처음으로 우리 모두 알 수 있게 된 그 고운 자태</p>
사. 공주 갑사 승탑 (보물 제 257호)	<p>· 승려들의 유골을 인장한 묘탑으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일 뿐 아니라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의 승탑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p> 	<p>갑사의 역사</p> <p>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럼 승려들은?</p> <p>그들의 육체는 아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 숨쉬고 있다 탑 속에서도 지키는 영혼의 고향 오늘도 갑사 곁에는 죽은 승려들이 가슴이 영혼이 마음이 갑사의 역사를 남긴다.</p>
아. 철당간지주	<p>·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입구에 달아 두는 깃발을 당이라 하는데, 당을 달아두는 기둥이 당간이다. 본래 28개의 철통이 있었으나 벼락을 맞아 4개가 사라졌다. 용의 머리가 맨 꼭대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p> 	<p>용두 :머리 없는 용</p> <p>용을 닮았다는 계룡산 갑사 모퉁이에 붉은 백일홍 만연한 배롱나무 지나 웅장한 기운 내뿜는 돌계단을 내려가면 머리 없는 용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 머리 잃은 슬픔을 삭히며 기다리고 있다.</p>

## 2) 계룡산 갑사, 전설을 재해석 하다.

갑사 당산제 전설	<p>조선시대 갑사에서 대웅전 안의 등에 불을 밝혀 놓으면 하룻밤도 못 넘기고 불이 꺼졌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 한 사미승이 차례가 되어 등을 지키고 있는데 잠깐 불이 꺼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p> <p>등 앞에 9척 장정이 서서 등잔의 기름을 발등에 붓는데, 당산신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나의 발등에 담뱃불을 비벼 끄기 때문에 씻기 위해 발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p> <p>승려들에게 “내가 여인에게 역병을 옮기고 그 여인이 불공을 드리게 하여 병을 고쳐 줄 터인데, 나를 정성껏 제향을 모셔주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괴목나무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때부터 괴목나무에서 음력 정월 초사흘에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p>
사미승의 관점에서 본 당산제 전설	<p>나는 갑사의 승려 사미승이다. 며칠 전부터 갑사 경내에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 등불을 밝혀 놓아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불이 꺼지고, 등잔 속의 기름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직접 보초를 서기로 하였고, 오늘은 내 차례이다.</p> <p>깜빡 조는 사이, 불이 꺼졌다. 조심스레 눈을 뜨니, 웬 9척 장정이 서서 등잔의 기름을 자기 발등에 붓고 있는 것이다. 나는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기름 도둑을 잡았다!!”라고 소리치자 동료들이 하나 둘 장정을 에워쌌다.</p> <p>두려움에 우리는 그를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그였다. 그는 동네의 여인의 역병을 낫게 해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 너무 무서웠다. 그는 사라졌고, 우리는 오랜 회의를 거쳐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마을에 역병이 사라졌다.</p>
당산신의 관점에서 본 당산제 전설	<p>나는 절 아래 산다. 요즘 들어 자꾸만 사람들이 내 발등에 담배를 끄기 시작했다. 너무나 뜨겁고 괴로워 갑사 절의 등잔 기름으로 발등을 몰래 닦다가, 오늘 자는 줄 알았던 승려에게 걸려버렸다.</p> <p>나를 나도 신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승려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한 여인에게 역병을 옮기고, 시전을 바치게 할 터이니 그 여인이 불공을 드리도록 하여 병을 고쳐주고,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남긴 채 사라지려는 찰나 나를 발견했던 승려가 감히 쫓아오기에, 괴목나무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p>
역병걸린 여자의 관점에서 본 당산제 전설	<p>나는 절 아래 산다. 요즘 들어 자꾸만 사람들이 내 발등에 담배를 끄기 시작했다. 너무나 뜨겁고 괴로워 갑사 절의 등잔 기름으로 발등을 몰래 닦다가, 오늘 자는 줄 알았던 승려에게 걸려버렸다.</p> <p>나를 나도 신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승려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한 여인에게 역병을 옮기고, 시전을 바치게 할 터이니 그 여인이 불공을 드리도록 하여 병을 고쳐주고,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남긴 채 사라지려는 찰나 나를 발견했던 승려가 감히 쫓아오기에, 괴목나무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p>

## 4. 결론 및 제언

시시 여행 갑사 안내 역사 가이드북을 직접 템플릿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우뇌드로잉-지도)



(책자제작)

탐사 기간 동안 비도 많이 오고, 힘들어 갑사 밖에 탐방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찰들이나 계룡산 전체에 대한 시시여행 안내책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5. 활동 후기

이동찬: 갑사에 가는 날 비가와 길이 미끄럽고 옷이 젖어 생각보다 힘든 산행이 되었다. 하지만 흐린

날이었기에 볼 수 있었던 안개와 구름이 뒤덮인 갑사와 계룡산의 모습은 비를 맞으며 갑사를 올라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갑사를 갔다온 다음날 시를 주제로 설화의 재구성과 책자에 들어갈 갑사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는 힘들고 고단한 경우도 있었지만, 과목에 대한 설화를 승려와 9척 장정과 역병에 걸린 여자의 입장이 되어 재구성 하는 과정은 설화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지도를 그릴때는 미술 시간에 배운 우뇌드로잉을 활용하였는데 오랫동안 그리는 그림이라 힘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진행하면서 친구, 선배와 함께 산을 오르고, 책자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고, 책자를 만드는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하면서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 의미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성: 계룡산에서 인문 자연 탐사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처음 받았을 때, 도대체 그저 산에서 어떻게 주제를 잡고 3일만에 탐구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였다. 하지만 인문 자연 탐사를 진행하면서 탐구는 그저 자연과학에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탐구란,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특히나 탐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인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탐구 과정에 융합되는지 우리 팀의 탐구와 다른 팀의 결과물들을 보며 알 수 있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계룡산 등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내 책자를 설계하고 디자인해 세종시 인근 업체에 맡겨 실제로 인쇄까지 했을 때 등산의 어려움이 까마득히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뿌듯했고, 자랑스러웠다. 무엇보다 팀 내 역할분담과 협동심, 그리고 리더쉽이 빛나 무사히 마칠 수 있던 것 같다.

이창민: 갑사로 탐사를 가는 날 비가 왔다. 비를 피하러 건물에 들어가 비가 오는 밖을 보며 탐사를 간 갑사를 주제로 시를 쓴다. 날씨도 습하고 산속에 갑사가 있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정신적인 보답을 받은 느낌이다.

이호진: 1년만에 다시 하게 된 인문자연탐사였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하는 거의 유일한 행사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다. 작년의 선배들의 기억을 떠올리고, 같이 탐사한 것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배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선물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자 하였다.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를 이끌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주제 잡는 것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같이 토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시’라는 소재를 잡고, ‘역사’라는 중심 주제를 잡은 결과 실제 탐사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탐구를 진행하였고, 결과물인 안내책자 역시 성공적으로 나왔던 것 같다.

탐사의 측면 말고도, 후배들과 한층 가까워지고, 서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여럿 진행해보고 싶다. 이 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6. 참고 문헌

- [1] 진위천 꿈지락(꿈꿈하게 알아보는 재미)
- [2] 계룡산 설화에 나온 민중 정서(역사 민속학, 2005.06, 정희정)
- [3] 계룡산의 문화사적 의미(역사 민속학, 2005.06, 윤용혁)